

## 〈책은 마법이야〉 그림책 활동지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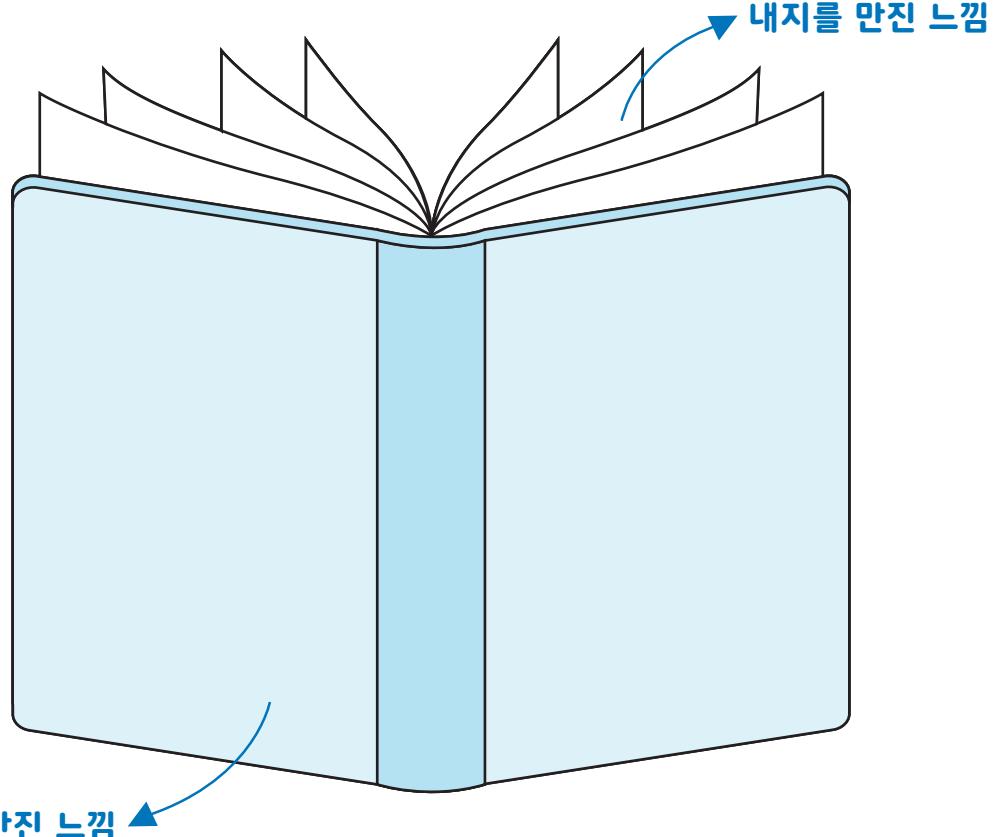
나를 반짝이게 하는 책의 마법





# 손끝으로 책을 느껴 봐!

책마다 만졌을 때 느낌이 달라요. 먼저 좋아하는 책 한 권을 골라 보세요.  
눈을 감고 책 구석구석을 손끝으로 만져 보고, 느낌을 아래 예시에서 골라 보세요.



예 미끌미끌해요 매끈매끈해요 반들반들해요 말랑말랑해요  
푹신푹신해요 부드러워요 보송보송해요 딱딱해요 빳빳해요 거칠거칠해요  
까끌까끌해요 오돌토돌해요 차가워요 따뜻해요 도톰해요 얇아요

**TIP** 책마다 냄새도 조금씩 달라요. 책에 코를 대고 킁킁 냄새도 맡아 보세요.  
※ 주의! 지독한 냄새가 날 수도 있음



# 그래, 바로 이 책이야!

나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거나 기억에 남는 책이 있나요?  
주어진 글귀를 읽고, 머릿속에 떠오르는 책 제목을 빈칸에 적어 보세요.

◆ 오래오래 간직하고 싶은 책 ◆

◆ 친구에게 선물하고 싶은 책 ◆

◆ 열 번도 넘게 읽은 책 ◆

◆ 내가 어렸을 때 좋아한 책 ◆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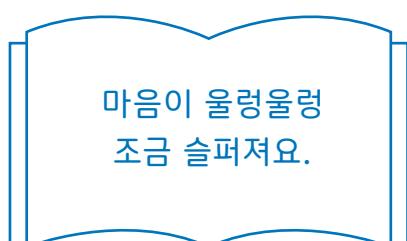
◆ 크리스마스가 되면 생각나는 책 ◆



# 찾았다! 신비한 책의 마법

책을 읽다 보면 입가에 미소가 피어나기도 하고, 마음속에 용기가 생기기도 해요.

책을 읽으며 느꼈던 '책의 마법'을 아래에서 골라 색칠해 보세요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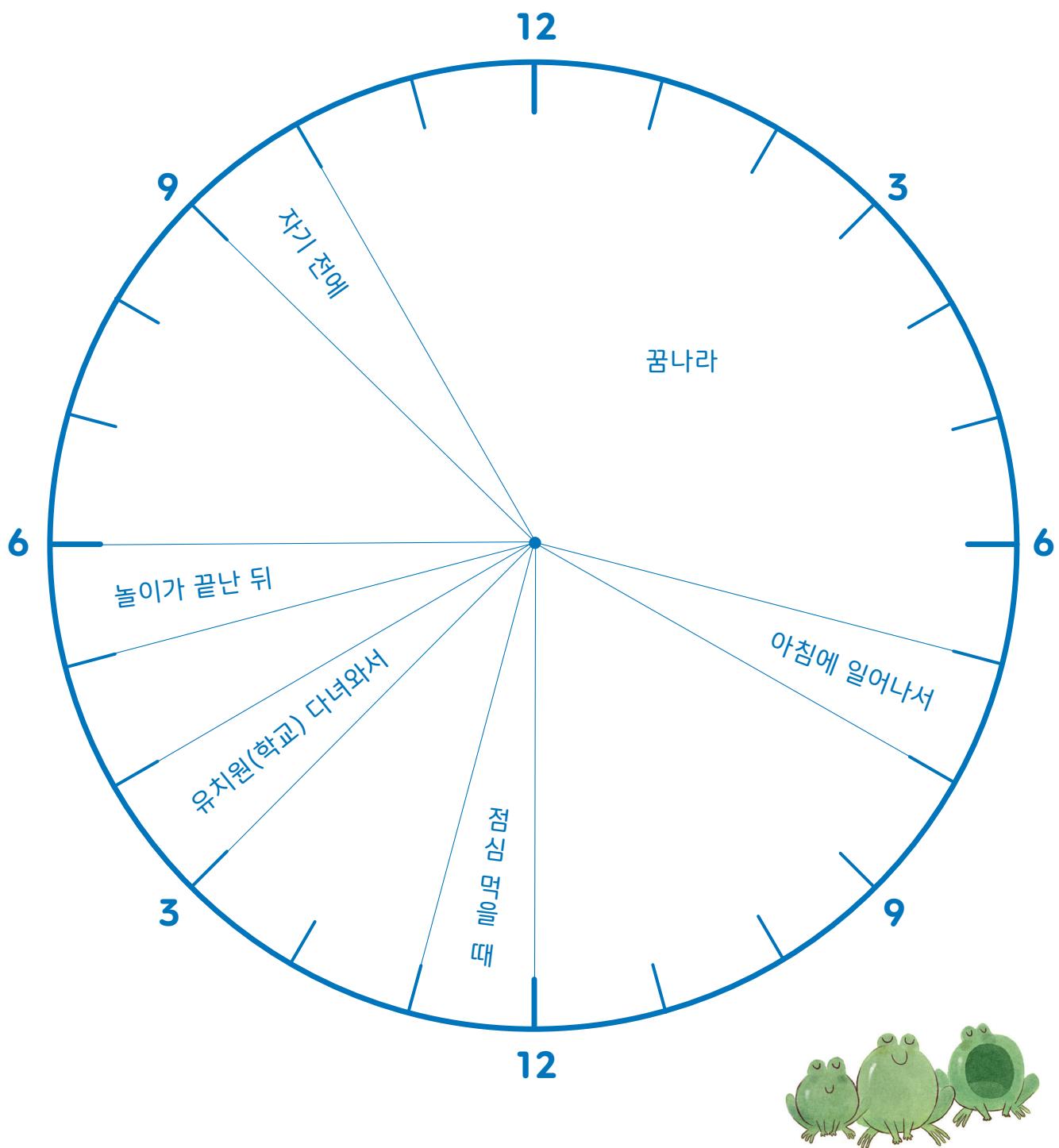




# 책의 마법이 필요해!

바쁘게 훌러가는 나의 하루 속, 책의 마법이 필요한 시간은 언제인가요?

아래 일과표에서 찾아 색칠해 보세요. 책의 마법이 필요한 나만의 시간을 좀 더 찾아봐도 좋아요.





## 이럴 땐 어떤 책?

속상할 때, 화날 때, 걱정될 때… 책을 읽으면 마음이 나아지기도 해요.

아래 상황을 읽고, 어떤 책을 읽으면 좋을지 생각해서 제목을 적어 보세요.

방학인데 너무 지루하고 심심해. 집 밖은 추워서 나가기 싫어.

입이 심심해. 뭔가 먹고 싶은데, 늦은 밤이라 먹으면 안 된다.

엄마가 동생만 예뻐하고 나한텐 관심도 없어. 엄마가 미워.

갑자기 이유 없이 화가 나. 크게 소리치고 물건을 마구 던지고 싶어.

같은 반 아이가 생일 파티를 하는데, 초대를 못 받아서 속상해.



# 무릎을 탁! 치는 제목

평범한 낱말들을 가위로 오려 이리저리 섞어, 특별한 제목을 지어 보세요.

책 제목이 완성되면, 이야기도 저절로 떠오를 거예요.

제목 :

예

용감한

아이스크림



용감한	카우보이
느림보	거북이
커다란	눈사람
반짝반짝	돌멩이
차가운	아이스크림

 소르베북스는 입가심처럼 일상의 환기가 되는 이야기를 만듭니다.  
그 일상의 환기가 건강한 마음의 성장으로 연결되기를 기대합니다.



**소르베북스**

〈책은 마법이야〉 그림책 활동지는  
소르베북스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.  
홈페이지 [www.sorbetbooks.com](http://www.sorbetbooks.com)  
전자우편 [sorbetbooks@naver.com](mailto:sorbetbooks@naver.com)  
블로그 <https://blog.naver.com/sorbetbooks>  
인스타그램 [@sorbet\\_books](https://www.instagram.com/sorbet_books)

©Sorbet Books X Mijade Publications